

AUTHOR 허철민

TITLE 칼빈의 예배 계획 “교회들 개혁함에 대한 필연성”의 글을 중심으로

IN 한국개혁신학논문집

Vol. 12 (2002), 253-285.

『한국개혁신학』 12 (2002): 253-85.

칼빈의 예배 개혁 "교회개혁에 대한 필연성"의 글을 중심으로

허철민(국제신대원)

서론

16세기 유럽은 종교 개혁의 물결에 휩싸이고 있었다.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가 이런 개혁 진원지의 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프랑스에서 온 칼빈에 의해 개혁이 주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위대한 개혁을 위한 신학작업과 예배갱신과 사회갱신에 열성을 바쳤다. 실상 칼빈의 종교 개혁은 제네바에서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오버만(Oberman)에 따르면, 그의 개혁을 위한 대상은 결코 제네바 도시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이었다. 그래서 그의 개혁은 프랑스로부터 온 개신교도 피난민들, 그리고 제네바에서 피난처를 발견한 다른 나라 피난민들--이 피난민들의 사명은 프랑스와 나머지 유럽에 참된 기독교로 되돌려 놓는 것이었음--에 대한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¹ 후대의 역사는 칼빈의 기독교에 대한 종교 개혁이 유럽 여러 나라에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칼빈의 종교 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요소의 하나는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예배에 대한 개혁이었다.² 그 당시의 로마

¹ Heiko Oberman, "Europa afflicta: The Reformation of the Refugees," *Archive for Reformation History* 83 (1992): 91-111.

² Carlos M.N. Eire, "Calvin's Attack on Idolatry," in *John Calvin and the Church*, ed., Timothy George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0), 248: "I

카톨릭 교회의 예배는 너무나도 왜곡되어져 버렸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가운데, 타락의 절정에 이르렀었다.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서... 개혁(reformation)은 바른 신학에 대한 투쟁일 뿐만 아니라 또한 바른 예배에 대한 투쟁이기도 했다.”³ 신자들이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합당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예배로부터 참된 예배로의 개혁이 칼빈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였다.

이런 예배 개혁에 있어서, 칼빈은 우상숭배적인 요소들이 있는 교회 당 안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을 지우며, 성상들을 파괴하고, 성인들에 대한 의식들을 폐지하면서, “우상에 항거하는 전쟁”(war against idols)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⁴ 그렇다면 중세의 로마 카톨릭 교회는 거의 이교도에 가깝다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인가? 스캇 헨드릭스(Scott Hendrix)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실상 이교도에 가까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한다.⁵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혁자들이 이교도로서 또는 우상 숭배자로서 공격한 기독교를 그들이 묘사했을 때, 그들은 이교주의의 정확한 속성에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 또는 자기들이 이 용어를 정확하게 공정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는 않았다. 요점은 기독교에 대한 한 실제적인 이단으로서의 대안을 명확하게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격하던 바로 초기 1500년 유럽의 전통적인 종교는 참된 기독교로부터 심하게 멀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⁶

would like to suggest that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formation on its own terms, as it was perceived by contemporaries, one must accept the polemic against Catholic worship as a dominant issue: 'The issue of idolatry was not an adjunct, 'negative,' or subordinate question for the Reformed, but rather a central, positive organizing theme of much of their theology and piety.'

³ Ibid., 248.

⁴ Eire, *War Against the Idols: The Reformation of Worship from Erasmus to Calvi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chapter 6. 이 장에서 에어리는 칼빈의 우상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다.

⁵ Scott H. Hendrix, "Rerooting the Faith: The Coherence and Significance of the Reformation," *The Princeton Seminary Bulletin*, Ns. 21, no. 1 (2000): 63-80. 스캇 헨드릭스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영향 하에 있던 중세 시대는 이교도들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우상적인 신앙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개혁자들은 올바른 성경적 신앙을 새롭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 선교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증거했음을 실득력 있게 논증하고 있다.

우상 숭배로 만연해 있던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선지자들의 외침처럼, 올바른 예배로 돌아오라는 칼빈의 외침을 듣게 된다. 칼빈은 기독교 안에 뿌리를 내린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을 보면서, 교회의 예배가 너무나도 변질되어 버림에 대한 분노와 함께, 참된 예배에로의 개혁을 부르짖는다. 이런 그의 예배에 대한 개혁은 그 어느 곳보다도 1543년에 찰스 5세에게 드리는 “교회를 개혁함에 대한 필연성”(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이라는 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본고는 이 글에서 나타나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 예배의 그 문제점들이 무엇이었나를 살펴보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개혁해 나가고 있는가를 살펴봄, 마지막에는 이런 개혁의 원리들이 무엇이었나를 살펴보고자 한다. 칼빈이 나열하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예배의 우상 숭배적이고도 잘못된 요소들을 지적함에 있어서 오늘날의 로마 카톨릭 교회를 정죄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예배 갱신(제 2 바티칸 공회)을 통해서 지나친 미사중심에서 설교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많은 개혁이 있어왔다. 그 당시의 예배의 문제점들은 16세기 초에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수백년을 걸쳐면서 세속문화와의 결합 속에서 예배의 타락이 그 절정에 이른 상황이었다.⁷ 우리가 관심을 지녀야 할 것은 성경과 건전한 전통에 입각한 고민이 없이 복음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세속문화의 쉬운 결탁을 통해서 조그만 것들이 누적되어져 버릴 때, 우리도 동일한 위험성에 처할 수 있다는 개혁 교회 내부를 향한 경성을 위해서이다.

I. 개혁 이전 제네바에서의 로마 카톨릭 교회 예배

칼빈은 찰스 황제에게 드리는 “교회를 개혁함에 대한 필연성”이라는 글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 예배에 대한 문제점들을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나열해 가지는 않는다. 이곳 저곳에서 예배와 관련된 이 문제, 저 문제를 거론하면서 개혁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 예배의 전반적인 윤곽을 먼저 그려보는 것이 좀 더

⁶ Ibid., 67,8.

⁷ 참조, Dom Gregory Dix, *The Shape of the Liturgy* (London: Dacre Press, 1945), 546-605; Hard Thompson,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Cleveland and 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961), 27-91.

로마 카톨릭 예배의 문제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런 로마 카톨릭 교회 예배를 칼빈과 연관이 있었던 제네바 시를 중심으로 묘사할 것인데, 그 이유는 로버트 킹돈이 여러 자료를 통해서 그 당시 개혁 이전의 제네바에서의 로마 카톨릭 예배를 구체적으로 잘 묘사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⁸

제네바에 개혁의 물결이 일기 전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영향하에 있었다. 제네바 시민들은--문맹자들과 글을 읽지 못했던 더 많은 여인들을 포함해서--개혁 이전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다니다가, 개혁 후에는 개신교로 탈바꿈하게 된다.⁹ 이런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개신교로의 전환은 예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미사 중심의 예배에서 설교 중심의 예배로의 전환"은 특이할만하다.¹⁰ 이것은 보는 행위로서의 미사에서 듣는 행위로서의 설교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¹¹ 제네바의 공공 예배에서 혁명이었다.¹²

⁸ Robert M. Kindgon, "The Genevan Revolution in Public Worship," *The Princeton Seminary Bulletin*, Ns. 20, no. 3 (1999): 264-80. 16세기 개혁이 일기전에 제네바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가 집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러나 킹돈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유럽 전역에서 드러지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예배 통해서, 특히 제네바와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프랑스의 예배 형식들을 통해서, 그리고 시민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지에 관한 규칙들이 쓰여진 제네바 종교 법원 기록들 (Registers of the Geneva Consistory)을 통해서 어느정도의 예배를 묘사해 낼 수가 있게 되었다.

⁹ 케이스 토마스는 그의 저서 *Religion and the Decline of Magic: Studies in Popular Beliefs in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y England* (London: Weidenfield and Nicolas, 1971)에서 유럽은 16세기 초기에는 기독교 나라들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단지 소수의 교육받고 권력을 쥐고 있는 엘리트들만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었고, 문맹자인 시골 농부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했고, 주로 혼합종교의 양상을 띠면서 마법사들과 원시적인 마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시골의 로마 카톨릭 성직자들만큼이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로버트 킹돈은 제네바의 종교 법원 (Geneva Consistory)에 기록되어 있는 당대의 상황을 검토해 보면 대부분의 제네바 시민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 다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Kindgon, "Genevan Revolution in Public Worship," 264-65).

¹⁰ Kindgon, "Genevan Revolution in Public Worship," 266.

¹¹ 워드 휴너는 "Ecclesia, Legenda atque Intelligenda Scriptura: The Church as Discerning Community in Calvin's Hermeneutic," *Calvin Theological Journal* 36 (2001)에서 "Calvin was replacing a visual act, the Mass with an essentially aural act, the sermon."라고 주장하는데, 실상 칼빈은 고대 예배의 패턴에 의존해서 성만찬과 설교의 이중구조를 유지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제네바시 의회가 매주 또는 빈번한 성만찬의 거행을 허락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설교 중심의 예배를 칼빈은 드려야 했다. 그러므로 칼빈이 이런 미사 중심의 보는 행위에서 설교 중심의 듣는 행위로의 전환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그리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칼빈이 성만찬을 예배에 적용하려고 했던 그의 노력에

16세기 개혁 이전의 로마 카톨릭 예배는 미사를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였다. 예배는 바로 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것은 성례가 예배의 중심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미사의 거행이 개혁 이전에는 매우 흔했었다는 사실이다. 매주 수백번의 미사가 거행되고 있었다. 이 미사들은 소 예배당에서 신부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진혼 미사(Requiem Mass)로서, 자신들을 위해서나 또는 참석한 소수의 회중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였다. 개혁 이전 제네바 시에는 7 교구의 모든 교회들에서 주일날에는 대 미사(high Mass)가 거행되었고, 축제일에는 교구에 있는 모든 성인들이 미사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이런 요청 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주일과 축제일에 실제적으로 미사에 참석했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책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참석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¹³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미사에 참석하는 경험은 오늘날의 미사에 참석하는 것과는 매우 달랐다. 이런 사실은 미사에 참석하는 동안 신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그 당시 지침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미사는 주로 신부들이 집행했고, 신자들은 주된 관찰자들이 되어 미사의 집행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거의 들을 수 있는 경험은 없었다. 신부들이 미사를 드리는 제단은 참석한 회중들과는 칸막이에 의해 구분되어 있었다. 미사를 드리는 신부들은 제단을 향하고 있었기에, 회중들은 신부의 등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신부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고, 이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이해될 수 없었는데, 라틴어로 말했기 때문이다. 이 지침서에 따르면 평범한 신자들은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으며, 단지 보고, 미사 동안에 기도하라고 권면되어지고 있다. 이런 교훈을 담은 프랑스 규범서는 18세기까지 계속되어진다. 미사 동안에 드려진 기도들은 공공 기도라기 보다는 각자가 나름대로 기도하는 개인 기도였다. 미사는 성스럽게 하는 종소리가 울리면서, 떡과 잔의 요소들에 대한 신부의 봉헌 기도(consecration)와 함께 그 절정에 달했다. 곧 이어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신부가 성체를

관해서는 본인의 논문 "유전환 예배로 향하여: 칼빈의 성만찬을 중심으로" 『국제신학』 3 (2001): 54-82를 보라.

¹² 킹돈은 그의 논문 제목을 "공중 예배에서의 제네바 혁명 (The Genevan Revolution in Public Worship)"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¹³ Kingdon, "Genevan Revolution in Public Worship," 267.

자기 머리보다 높게 들어 올린다. 신실한 카톨릭 신자들은 이 봉헌 기도와 함께 한 기적이 일어나며, 신부의 손에 있던 성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믿는다. 사실상 성체는 하나님이다.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애매하게 말하지만, 16세기에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런 애매한 차이점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이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들어오셨다고 확신했다. 자기들 가운데 계신 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합당한 존경을 드려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¹⁴

이 미사에는 시작에서 인사가 있었고, 축도로 마친다. 신부의 기도들이 있었고, 신부에 의해서 인도되어지는 회중들의 기도가 있었는데, 산자와 죽은 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개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풍년이나 순산을 위한 특별한 목적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성경 봉독이 있었는데, 라틴어로 읽었으며, 주로 서신서에서 읽혀지고, 복음서는 노래로 봉독되었다. 평화의 키스가 있었고, 성수의 뿌림이 있었다. 미사 시에 성직자들끼리 성체를 먹었지만, 평신도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었다. 단지 부활절에는 모든 교구의 멤버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오랜 준비기간과 충분하고도 적절한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 속에서 성체를 받아 먹었다.¹⁵ 개신교 설교에 유사한 예배의 한 유일한 부분이 있었는데, 교구 성직자에 의한 라틴어가 아닌 평어로서 간단한 설명이 있었다. 이 부분에는 얼마간의 광고와 경우에 따라서는 교리문답 교훈들이 있었다.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신부들은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알지 못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기대하지도 않았다.¹⁶

이것은 중세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단지 정상적인 교회 예배 안에서 설교를 듣지 못했던 것이다.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보

¹⁴ Ibid., 267.

¹⁵ Frank C. Senn은 그의 저서 *Christian Liturgy: Catholic and Evangelica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223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사실을 말해준다: "회중들이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식, 금주, 그리고 죄의 고백과 용서받음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했는데, 대부분은 이런 금욕적인 실천들이 매우 어려웠고, 그래서 회중들은 성만찬에 참여하기를 꺼려했다. 그래서 제 4차 라테란 회의(1215)는 신실한 자들은 적어도 일년에 한 번 부활절에, 죄의 고백과 용서함을 받은 후에 성만찬에 참여해야 하라는 칙령을 공포한다."

¹⁶ Kindgon, "Genevan Revolution in Public Worship," 268.

통은 수도사들이었다. 이들은 특별한 절기 동안, 대부분 강림절이나 Lent 동안에 일련의 특별한 설교들을 하기 위해 도시에 온다. 이들은 흔히 교회가 아닌 수도원이나 공공 장소에서 설교를 했다. 이것은 제네바에서는 설교들이 도시 문들의 하나가 있는 근처로서 리베(Rive)에 있는 프란시스 수도원의 큰 강당이나 혹은 성벽의 밖에 있는 도미니칸 수도원의 큰 뜰에서 전파되었다. 후에 프란시스 수도원의 강당은 윌리엄 화렐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가장 초기 개신교 설교들이 전파된 곳이기도 하다.¹⁷

그러나 성례는 중세 신앙의 바로 그 중심에 있었다. 핵심이 되는 봉헌기도와 성체의 들어올림과 하나님의 기적의 도래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중요시되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다. 시간이 바쁜 사람들은 단지 이 한 순간을 위해서 와서 보고서는 곧바로 떠나버렸다. 이런 신자들의 행동에 신부들은 기뻐하지 않았고, 그래서 매주 미사에 부분적으로가 아닌 온전히 참석해야 할 종교적인 책무가 있다는 빈번한 경고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경고들이 발해졌던 바로 그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미사에 온전히 참석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 준다.¹⁸

이런 미사를 통해서 중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것들을 시각을 통해서, 미사를 지켜 봄을 통해서, 향의 냄새에 의한 자극을 통해서, 그리고 로자리의 염주를 통해서 형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본질적인 지식은 성경 말씀의 들음을 통해서가 아니었다.

II. 칼빈의 예배 개혁

칼빈은 이런 미사 중심의 예배에 엄청난 개혁의 수술을 단행한다. 그는 "교회를 개혁함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글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중요한 것들이 기독교를 우리 가운데 견고히 존재하게 하고, 그 진리를 유지하게 하는가 라고 질문되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될 것인데, 다음에 오는 두 가지는 기독교의 핵심을 이룰 뿐만 아니

¹⁷ Ibid., 268.

¹⁸ Ibid., 268.

라 모든 다른 부분들이 이 두 원리 아래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기독교의 전 본질은 첫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길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원천으로부터 구원이 획득되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둘을 올바로 보지 못할 때,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¹⁹

칼빈은 예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지녀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그리고 구원은 합당한 예배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기원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올바른 예배는 의를 선행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참된 지식을 선행하기까지 한다는 주장이다. 즉, *lex credenti*가 *lex orandi*를 형성한다는 견해이다.²⁰

그 다음에 칼빈은 올바른 예배에 대한 정의를 서술해 간다. 예배의 근본적인 토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경외의 인식이며, 그런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된 예배이다. 물론 이런 경외에 대한 마음의 외적인 표현으로서, 예식의 행위를 통해서 기도, 찬양, 그리고 감사를 드린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신자들은 세상과 자기를 부인하리라는 결심과 그리고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하게 하리라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된다. 참된 예배는 참된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되고 신실한 예배가 되게 한다. 이런 예배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가르쳐지며, 경건에 대한 내재적인 감각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다고 칼빈은 서술하고 있다.²¹ 이러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¹⁹ John Calvin,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in *Tracts Relating to the Reformation*, trans. Henry Beveridge, vol. I (Edinburgh: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44), 126.

²⁰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s. 20-21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2.8.11. 엘지 앤 맥키 (Elsie Anne McKee)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독교 강요』의 첫 장들은 개혁자의 전 조직신학에 대한 일종의 서론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경외의 인식(예배)이 없이는 하나님에 관한 표현(신학)이 있을 수 없다는 칼빈의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Context, Contours, Contents: Toward a Description of the Classical Reformed Teaching on Worship," *The Princeton Seminary Bulletin*, vol. 16, no. 2 (1995): 175-76].

²¹ Calvin,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127: "Let us now see what is meant by the due worship of God[*cultum Dei legitimum*]. Its chief foundation is to

경이로움과 영광에 대한 송축(doxology)이며, 인간의 반응은 경배, 감사, 그리고 찬양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지니지 못할 때, 그래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갈 때, 결국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칼빈의 생각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찰스 황제에게 보내는 이 글에서 예배와 구원의 관계를 서로 교차로 논의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의 왜곡되어진 예배관으로 인해, 구원에 대해서도 행위를 강조하는 잘못된 길로 나아갔다고 칼빈은 지적하고 있다. 인간의 창조적인 고안에 의해서 예배를 치장해 간다는 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교리로 형성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예배와 교리와의 상호 교차적인 논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칼빈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서의 문제점들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개혁을 위한 대안들을 내세우고 있는지를 잘 엿볼 수가 있다.

1. 기도

칼빈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반의 영광 혹은 반보다도 더 많은 부분의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고 있다”고 말한다.²² 그는 이런 타락의 명백한

acknowledge Him to be, as He is, the only source of all virtue, justice, holiness, wisdom, truth, power, goodness, mercy, life, and salv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to ascribe and render to Him the glory of all that is good, to seek all things in Him alone, and in every want to have recourse to Him alone. Hence arises prayer, hence praise and thanksgiving--thes being attestations to the glory which we attribute to Him. This is that genuine sanctification of His name which He requires of us above all things. To this is united adoration, by which we manifest to Him the reverence due to his greatness and excellency, and to ceremonies are subservient, as helps or instruments, in order that, in the performance of divine worship [*cultus divini*], the body may be exercised at the same time as the soul. Next after these comes self-abasement, when, renouncing the world and the flesh, we are transformed in the renewing of our mind, and living no longer to ourselves, submit to be ruled and actuated by Him. By this self-abasement we are trained to obedience and devotedness to his will, so that his fear reigns in our hearts, and regulates all the actions of our lives. That in thses things consists the true and sincere worship which God approves, and in which alone He delights, is both taught by the Holy Spirit throughout the Scriptures, and is also, antecedent to discussion, the obvious dictate of piety [*pietatis sensus*].”

²² Ibid., 129.

증거를 기도에서 발견한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않는지에 대한 한 시험대를 제공해 준다.²³ 로마 카톨릭 교회의 기도는 혼잡한 양상을 띠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있음을 칼빈은 지적한다. 신자들이 기도에서 하나님과 함께 난잡하게 천사들과 죽은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사실이다.²⁴ 천사들과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들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에, 보호자(patron)의 안내가 없이는 그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헛된 상상에서 기인하다.²⁵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 신자들은 자신들의 기도를 중재해 줄 보호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은 마리아를, 다른 사람은 미가엘을, 또 다른 사람은 베드로를 선택한다. 그리스도는 이런 보호자의 명단에 두는 영예를 거의 주지 않는다. 그들은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지나쳐 버리고 모든 성인들의 보호자들을 신뢰하는 것이다.”²⁶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듯이 이런 보호자들을 난잡하게 부른다. 그리고 그들이 성인들이나 천사들에게 부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차이점이 사라지면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인들에게 부르짖는다. 칼빈은 더 나아가서 각 성인은 자기에게 할당된 특별한 영역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 성인은 비를 주며, 또 다른 성인은 좋은 일기를 주며, 어떤 성인은 열병으로부터 구원해 주며, 또 다른 성인은 배의 파선으로부터 구원해 준다는 것이다.²⁷ 칼빈은 이런 로마 카톨릭 교회의 기도를 이교적인 행위가 교회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공격한다.²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기도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리스도의 중재자로서의 직분이 간파되어져 버리고 있다고 칼빈은 말한다. 단지 그리스도는 성인들과 함께 이 중보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이해되어지고 있는 것이다.²⁹

²³ Ibid., 130.

²⁴ Ibid., 130.

²⁵ Ibid., 155.

²⁶ Ibid., 155.

²⁷ Ibid., 155.

²⁸ Ibid., 155.

²⁹ Ibid., 191.

그들은 심지어는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를 명령할 수 있는 권위까지도 허용하는 실정이었다 : “아버지께 부탁해 주시고, 아들에게 명령하십시오.”³⁰ 기도에서 이런 인간의 고안에 의한 성인들과 천사들의 중재로 인해서 제 2의 하나님인 그리스도는 경시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개신교 교회에 빠져 있다는 비난에 대해서도 대답하고 있다. 그는 성경 어디에도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한다. 물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자신이 이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그 약속에 따라 축복을 구하는 것이지, 결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이 죽은 조상들로부터의 중보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조상들에게 언약과 관련해서 주어진 약속의 축복에 대한 호소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주님의 어떤 말씀도 없는 데, 성인들의 중보를 요청한다는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도를 위한 유일한 토대이다.”³¹

그리고 알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는데 대해서 칼빈은 또한 문제를 제기한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예배의 권위를 위해서는 기도에서 라틴어만이 유일한 언어로 규정지어 버렸다. 그러나 기도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들을 알리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다. 생각이나 이해됨이 없이 혀를 움직인다는 것은 이런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생각과 이해와 함께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쏟아부으려면, 결국 자신이 사용하는 말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는 교회에 거슬리는 것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칼빈은 “한 대주교는 라틴어가 아닌 자신들의 언어로 주기도문을 외웠던 사람에 대해서 투옥으로 위협했던” 사실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³²

칼빈은 이런 로마 카톨릭 교회 예배에서의 기도의 문제점들과 관련해서 세 가지 것을 교정한다. 첫째는 모든 성인들의 신상들과 형상들을 버리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성인들의 중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오직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말한다.

³⁰ Ibid., 190.

³¹ Ibid., 156.

³² Ibid., 158.

칼빈은 기도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사역을 강조한다: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기도들과 우리 자체를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은혜를 얻게 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한 중보자로 그리고 평화 중재자가 되는 영예를 얻으셨다. 그 홀로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그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기에, 이 영예에 어떤 동참자도 인정하지 않으신다.³³

그러므로 칼빈은 그의 가르침에서 성인들의 중보들을 포기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두며, 아버지를 그의 이름으로 부르고, 중재자로서 그를 신뢰할 것을 강조한다. 이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인 것이다.³⁴

둘째로, 기도는 죽은 성인들의 중보에 의존하지 않고,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³⁵ 이런 믿음은 중재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함과 확신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며,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믿음이다. 이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뜻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칼빈은 가르치고 있다.³⁶

셋째로, 신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기도를 중얼거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명백한 이해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칼빈은 개혁 교회에서는 모두가 남녀 차별 없이 자신들이 쓰는 언어로 기도를 한다고 말한다.³⁷

³³ Ibid., 191.

³⁴ Ibid., 154.

³⁵ Ibid., 156: "And while he elsewhere says, that every action of our lives should be preceded by faith, i.e., a conscientious assurance, he shows that this is specially requisite in prayer, more so, indeed, than in any other employment"; Ibid., 157: "prayer proceeding from true faith obtains favour with God; whereas, prayer accompanied with distrust rather alienates Him from us. For this is the proper mark which discriminates between genuine invocation and the profane wandering prayers of the heathen."

³⁶ Ibid., 157.

³⁷ Ibid., 159: "The method by which, in our churches, all pray in common in the popular tongues, and males and females indiscriminately sing the Psalms, our adversaries may ridicule if they will, provided the Holy Spirit bears testimony to us from heaven, while he repudiates the confused, unmeaning sounds which are uttered elsewhere."

그렇다면 참된 기도란 어떤 것인가? 칼빈에 따르면, 참된 기도는 간청 이상의 것이 요구되어진다. 즉 신자들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또한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개입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만이 자신이 도피할 유일한 자인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로 우리를 교제에로 부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³⁸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도에도로 부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대제사장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기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진리를 칼빈은 옳게 파악한 것이다.

이런 기도에 관해서는 1559년에 씌여진 『기독교 강요』에서 잘 나타나 있다.³⁹ 기도에 관한 장이 책 3권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 이 기도에 관한 장에서 칼빈은 공적인 기도와 사적인 기도에 관한 핵심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유익들을 받는 신앙의 주된 활동 (the chief exercise of faith)”이라 부르면서,⁴⁰ 나중에 “경건의 의무들 가운데 성경은 기도보다 더 명령하는 것은 없다”고 덧붙인다.⁴¹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셨고, 그리고 기도를 들으리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간구와 감사는 분리할 수 없는 개념들인데,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는 것은 모든 과거와 미래의 자비들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의 예배의 주된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모든 좋은 것들의 유일한 원천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치에 우상들을 놓아 버리는 것이다”⁴² 이러한 기도에서 우선적인 형식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붓는 것이

³⁸ Ibid., 130.

³⁹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기도에 관한 특별한 장을 할애한다. 3.20에서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언급한다: 일반적인 기도(“속성과 가치,” “올바른 기도를 위한 규칙들,” “결합있는 기도들,” “그리스도의 중보,” “성인들의 중보에 대한 잘못된 교리들에 대한 거절”); 예배와 관련된 질문들 (“여러 종류의 기도들: 개인 기도와 공중 기도,” “노래와 구어의 사용”); 주기도문에 관해서; 기도의 특별한 때들과 기도에서 좌절되지 않는 이내.

⁴⁰ Institutes, 3.20.

⁴¹ Institutes, 3.20.13.

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기도는 짜여질 수도 있고, 즉각적일 수도 있으며, 공적이나 사적일 수도 있으며, 말해지거나 노래되어질 수 있다. 비록 칼빈은 개인적인 기도들에 대한 안내 지침서도 제공하지만, 그는 우선적으로 공적인 기도를 규정함에 관심을 갖는다. 왜냐하면 모든 개인적인 헌신은 그리스도의 몸의 통합적인 예배의 확장으로서 보기 때문이다.⁴³

칼빈은 찬송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한다. 이런 찬송에 대한 언급은 기도의 문맥 안에서 말함으로써, 칼빈에게 찬송은 기도라는 큰 문맥 안에 포함시켜 버리고 있다. 칼빈은 미사 찬송의 불경스러움을 한탄스러워한다: “찬송에서 울려 퍼지는 불경스러움에 대해서 무엇이든 말할 것인가? 어떤 경건한 사람도 최악의 공포와 함께 들을 수 밖에 없는 그 신성 모독을 말이다.”⁴⁴ 이런 신성 모독은 성삼위 하나님께 드러져야 할 찬양이 성인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었다. 찬양이 마리아에게 들려지면서, 그녀를 천국, 소망, 생명, 그리고 구원의 문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수 많은 찬양이 성인 클라우드에게 들려지고 있었는데, 그는 “장님들의 빛”이요, “죄인들의 안내자”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생명”이라고 찬양받으며 불리워지고 있었다.⁴⁵ 칼빈은 이런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발람을 바꾸어 버리는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고 표현한다⁴⁶

⁴² *Institutes*, 3.20.13,14,28.

⁴³ “Now if we so desire, as is fitting, to extend our hand to one another and to help one another, there is nothing in which we can benefit our brethren more than in commending them to the providential care of the best of fathers; for if he is kind and favorable, nothing at all else can be desired. Indeed, we owe even this very thing to our Father.... Let the Christian man, then, conform his prayers to this rule in order that they may be in common and embrace all who are his brothers in Christ, not only those whom he at present sees and recognizes as such but all men who dwell on earth. For what God has determined concerning them is beyond our knowing except that it is no less godly than humane to wish and hope the best for them”(Institutes 3.20.38). “Nevertheless this does not prevent us from praying especially for ourselves and for certain others, however our minds do not withdraw their attention from this community or turn aside from it but refer all things to it. For although prayers are individually framed, since they are directed to this end, they do not cease to be common” (Institutes, 3.20.39).

⁴⁴ Calvin,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190.

⁴⁵ *Ibid.*, 190.

⁴⁶ *Ibid.*, 190: “The Lord denounces the severest threatenings against those who, either in oaths or in prayers, confounded his name with Baalim.”

이런 미사 찬송의 혼란성을 피하기 위해 칼빈은 개혁교회에서 라틴어가 아닌 평어로 남녀 차별없이 시편을 노래한다고 말한다.⁴⁷ 평범한 일상 언어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동시에 시편을 찬송했다는 것은 예배에서의 거대한 변화였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속한 비평가들은 개신교도들이 여성도 공중 예배에서 노래하도록 허용함에 대해서 경악해 한다. 칼빈에 대한 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비평가는 바울은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고 명령했는데, 칼빈은 노래를 부르게 한다고 말하면서, 여성들은 자신들의 장롱에서나 노래를 부르지, 남성이 있는 곳에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여성이 교회에서의 시편 찬송에 대해서 비평을 가한다.⁴⁸ 칼빈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어디에서나, 집에서나 들에서나, 성경을 노래하기를 원했다.⁴⁹

칼빈은 기도를 노래로 부름에 있어서 시편 만큼 더 낮은 찬양이 없다고 말한다. 그가 1542년에 편찬한 Genevan Psalter의 서문에서 이에 대한 이유를 말한다: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기도하도록, 우리가 그를 사랑하며, 경외하며,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그의 일에 관해 묵상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준다.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이 참으로 사실일진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최상으로 합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⁵⁰ 시편이 성경으로부터 오기에 시편을 찬양하는 것은 성경적이다.⁵¹ 칼빈은 음악가가 아니라 신학자였기에 Genevan Psalter를 작성함에 있어서 음악에 재능 있는 자들의 도움을 받는다.⁵² 그가 예배를 위해서 작성한 Form of

⁴⁷ Ibid., 159.

⁴⁸ *L'histoire de la Naissance, Progrez et Decadence de L'heresie* (Rouen, 1623), bk. 8, chap. 10, 1010, quoted in McKee, "Context, Contours, Contents," 199.

⁴⁹ Charles Garside Jr., "The Origins of Calvin's Theology of Music: 1536-1543," in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vol. 69, part 4 (Philadelphia: Independence Square, 1979), 1-36.

⁵⁰ *Genevan Psalter*, preface, quoted in Hughes Oliphant Old, *Worship That is Reformed According to Scripture* (Atlanta: John Knox Press, 1984), 52.

⁵¹ 스트라스버그에서 마틴 부처에 의한 예배 모범에서는 시편과 찬송(psalm and hymn)의 균형을 유지하지만, 칼빈은 이런 균형을 유지하지 않고, 시편만 예배에서 부르도록 한다. 분명히 칼로새서 2장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psalms, hymns, and spiritual songs)를 부르라는 말씀이 나타난다. 칼빈은 시편만을 옹호함에 있어서 성경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초대 교부들인 존 크리소스톰과 어거스틴의 글에 의존한다. 이것은 시편 이외에 찬송을 부르더라도 반대할 이유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Old, *Worship*, 52).

⁵² 칼빈과 음악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Old의 *Worship*, 51-53; Howard Rice and

Prayers(1542)에서 칼빈은 단지 설교 후에 한 편의 시편이 불리워 지도록 했지만, 후에는 예배 시작에, 그리고 설교의 전과 후에 불리워 지도록 예배 순서를 작성했다.⁵³

2. 성례

칼빈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7개의 성례들을 제정해 놓았는데, 실상은 인간에 의해 고안된 예식들과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것들과의 혼합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의 은혜가 임하는 성례들은 주님이 제정한 성례들에만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례들과 관련해서, 인간에 의해 고안된 예식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되어진 신비들과 같은 반열에 두어졌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만을 제정하셨는데, 나머지 것들은 단지 인간적인 권위에 의존하면서, 7개의 성례들이 어떤 차별이 없이 받아들여졌다. 이들 안에 마치 그리스도가 임재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성례들에 임하는 것처럼 말이다.⁵⁴

칼빈은 그리스도께 제정하신 두가지, 세례와 성만찬마저도 두려울만치 타락해 있다고 말한다. 세례는 너무나 많은 부가물들로 치장되어 있어서, 순수하고 참된 세례의 흔적을 거의 찾아 들어가기 어렵게 되어 버렸으며, 성만찬은 외적으로 준수함에 있어서 타락해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형식마저도 전적으로 변화되어 버렸다고 말한다.⁵⁵ 주님의 만찬과 미사의 유사성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된 것이다.

칼빈은 세례와 성만찬을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므로, 이 두 가지만을 성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실행되던 이 두 성례의 예식들도 성경과 초대교회에서의 관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변질되어져 버렸고,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서 승인되어지고, 사

James Huffstutler, *Reformed Worship* (Louisville: Geneva Press, 2001), 100-4를 보라. 좀 더 깊은 고찰을 위해서는 Charles Garside Jr.의 논문인 "The Origins of Calvin's Theology of Music: 1536-1543"; W. Stanford Reid의 논문 "The Battle Hymns of the Lord: Calvinist Psalmody of the Sixteenth Century," in *Sixteenth Century Essays and Studies*, vol. 2, ed. Carl S. Meyer (St. Louis: Foundation for Reformation Research, 1971)을 참고하라.

⁵³ Rice and Huffstutler, *Reformed Worship*, 103.

⁵⁴ Calvin,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137.

⁵⁵ *Ibid.*, 137.

도들에 의해서 실천되던 단순성이 후대까지 계속되지 못했다고 칼빈은 말한다. 보이는 표징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서 설명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단지 빈 상징들만을 보게 하고, 어떤 것도 설명되어짐이 없이, 눈만을 요기하도록 해 버렸던 것이다. 예배에 참석한 회중들은 적절한 목적으로 인도할 어떤 한 교리도 듣지 못하고, 그들은 단지 외적인 행위만을 보게 되었다. 이런 성례 자체가 구원에 충분한 것인 것처럼, 그래서 신앙과 회개에 대해 애타하는 느낌이 없이, 표징 자체에만 고정하고, 그것이 가리키는 본질은 간과되어져 버렸던 것이다. 실상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례는 그 자체로 효과적이라고 말함으로써 예배에서 이런 보는 행위에만 관심을 갖게 했다.⁵⁶

세례와 관련해서, 칼빈은 그 예식들 가운데 부분적으로 쓸모없고, 부분적으로는 미신적인 성향이 있는 많은 요소들은 인간의 고안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으로서 폐기되어져야 할 것을 말한다.⁵⁷ 후대에 다양한 요소들이 예식에 첨가되었는데, 문체는 참된 세례 자체보다는 이런 부가물들에 더 가치가 두어져 버렸다는 사실이다. 상징적인 요소들 자체의 효력을 너무나 드높였기에, 성직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 상징적인 요소들을 지나치게 강조해 버리고, 본질 자체인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중요성을 간과해 버렸다.⁵⁸ 칼빈은 그 상징적인 요소인 '물'이 물론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이런 요소도 그 효력을 가능케 하는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세례에서 물과 말씀과의 관계를 초대 교회 관습에 의존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라티안에 의해서 인용된 어거스틴의 말씀이 있다: “만일 말씀이 결핍되어 있다면, 물은 요소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으로써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는 즉각적으로 말한다: “우리가 전파하는 신앙의 말씀이다.”⁵⁹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동반되지 않는,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지 않는 가운데 세례 예식 자체에만 치중한다면, 그런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칼빈은 말하고 있다.

이런 세례를 집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칼빈은 또한 문제점을 제기한

⁵⁶ Ibid., 139.

⁵⁷ Ibid., 166.

⁵⁸ Ibid., 166.

⁵⁹ Ibid., 166.

다.

집행의 방식에서 또 다른 잘못은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 세례 예식이 참석자들에게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백하게 이해되어지는 말로 예식을 거행하지 않고, 마치 주술을 하는 것처럼 속삭이는 소리로 들을 수 없게, 마치 마법적인 요술을 행하는 것처럼 성직자들은 예식을 거행해 버렸다.⁶⁰

로마 카톨릭 교회의 미사와 관련해서 칼빈은 할 말이 많았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예배가 미사 중심의 예배인데, 이 미사가 너무나 성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예배의 근본이 잘못된 것이며, 결국 하나님 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되어 버린다. 칼빈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미사에서 성만찬은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거의 폐지되어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⁶¹ 이런 잘못된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산산조각이 날 정도가 되어 버렸다고까지 칼빈은 표현하고 있다.

칼빈은 미사의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미사의 핵심이 제사(sacrifice)라는데 있다.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성찬 제정에서 떡과 잔을 받고, 먹고, 그리고 마시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나 미사에서는 '받는 것'(taking) 대신에 '드리는 것'(offering)으로 대체해 버렸다. 칼빈은 "누가 감히 받는 것(taking)을 드리는 것(offering)으로 바꾸어 버리는 권세를 지녔는가?"라고 반문한다.⁶² 이렇게 해서 떡과 포도주를 제물(oblation)로서 보는 성향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제정의 말씀과 어긋난다.⁶³ 더욱 심각한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 따르면, 이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면서 산 자와 죽은 자들의 죄를 대속해 주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다.⁶⁴ 이렇게 해서 은혜를 획득하는 원인으로 이 미사를 산자와 죽은 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미신적 신앙인 것이다.

이처럼 성만찬이 미사에서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사로 되어 버리고 사람들의 죄의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되어 버릴 때,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는 바로 구약의 제사장 역할을 하

⁶⁰ Ibid., 167.

⁶¹ Ibid., 167.

⁶² Ibid., 138.

⁶³ Ibid., 167.

⁶⁴ Ibid., 167; Ibid., 196: "미사는 한 희생이었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이신 떡을 먹으므로 산자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의 죄들도 속죄 되어진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게 되는 것이다: “성직자는 마치 아론의 후계자인 것처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희생을 드리는 것처럼 한다.”⁶⁵ 미사를 집행하는 성직자는 제사장이 되어 버리므로서, “영원한 제사장직이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사람에게로 옮겨져 버렸다.”고 칼빈은 말한다.⁶⁶

미사가 제사가 되어 버림으로써 나타나는 현상들도 역시 칼빈에는 성경적이지 않았다. 그는 화체설의 허구성을 정죄해 버린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명백한 말씀에 위배일 뿐만 아니라, 그 속성 자체에 대해서도 위배이다라고 말한다. 칼빈은 분명히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떡과 잔은 그 표징들이 의미하는 바의 영적 진리를 담고 있는 보이는 표징일 따름이다라고 말한다. 로마 카톨릭의 문제점은 예배에 참석한 회중들이 이에 험악한 미신적인 요소를 더해버림으로써,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고 믿는데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처럼 떡에 배어 달리며, 하나님처럼 그것에 경배하고 있다고 칼빈은 그들의 왜곡됨을 지적하고 있다.⁶⁷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과정이 바로 봉헌 기도에서 이루어진다. 미사 인도자들은 봉헌기도에서 숨을 내쉬고, 속삭임으로써(breathings and whisperings),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말함으로써, 떡과 포도주에 신비를 일으킨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속삭이는 소리로 중얼거림으로써 빵과 포도주를 신성화시키는 척 했다.”⁶⁸ 이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소원이었던 것처럼, 예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말소리는 중얼거림이었고, 명백히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해지지 않았다고 칼빈은 말한다. 공적인 기념 대신에 은밀한 “마법적인 예술”이 되어 버렸다까지 혹평하고 있다.⁶⁹ 이런 봉헌 기도의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떡과 잔을 회중들에게 분배하지 않았다. 성직자가 모든 회중으로부터 자신을 구분해서, 회중들에게 가져와서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을 혼자 먹고 마셔 버렸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스런 상징들

⁶⁵ Ibid., 138.

⁶⁶ Ibid., 138; Ibid., 167: “The dignity of the priesthood, which belonged exclusively to Christ, had been transferred to mortal men.”

⁶⁷ Ibid., 168.

⁶⁸ Ibid., 169.

⁶⁹ Ibid., 139.

에 서로가 참여하여 교제하라는 것이었는데, 미사에서는 “비교제”(excommunication)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칼빈은 말한다.⁷⁰ 어떤 특정한 때에, 회중들이 미사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는다. 그러나 온전한 떡과 잔에의 참여는 허용되지 않았고, 단지 떡만 먹도록 허용되어졌다. 회중들이 잔을 만지는 것이 금지되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떡과 포도주가 다 예수님의 몸이 되기에, 일부인 떡만 먹어도 온전한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나 다름이었다는 생각에서였다.⁷¹

미사에서의 떡은 마치 하나님처럼 숭앙되어졌다. 떡을 위한 봉헌기도를 한 후에 그 떡을 조그만 상자에 보관하고, 경우에 따라서 엄숙하게 성직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높은 곳에 두었다. 회중들은 그리스도 대신에 그것에 경배하고 기도를 했다. 또한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는 이 떡상자가 있는 곳에 와서 보호 받기를 원했다. 모든 불상사로부터 보호해주는 마력으로 떡을 사용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에 있어서, 떡을 최상의 속죄로서 사용했다.⁷² 성직자가 빵을 엄숙한 상태로 나르면서, 그것을 경배되어지도록 높은 곳에 두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제정에 모순된 것이라고 칼빈은 비판한다.⁷³ 더 나아가서는 이 떡을 매때까지 했다. 왜냐하면 이 떡은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속죄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떡이 쌓여졌고, 교회는 마치 일반 상품 가게처럼 되어 버렸던 것이다.⁷⁴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이 사람들에 의해서 극장의 공연으로 변해 버렸고, 어떤 제사장적인 행위들은 마치 그리스도의 계승자나 되는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재자로서 놓아 버렸고, 유일하고도 영단번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가 상실된 채, 속죄의 수많은 희생들이 매일 한 도시에서 제공되었고, 그리스도는 마치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시지 않은 것처럼, 하루에 수천 번 희생되어 졌었다고 칼빈은 강렬하게 비판한다.⁷⁵ 이렇게 해서 성만찬의 특징이 오용되어져 버렸다. 이 모든 미사에서의 잘못된 행위들이 희생 제사라는 단일 관념에 의해서 왜곡되어져 버렸던 것이다. 칼빈은 이런 미사를 통해서 “그들이 그

⁷⁰ Ibid., 138.

⁷¹ Ibid., 139; Ibid., 196.

⁷² Ibid., 139.

⁷³ Ibid., 168.

⁷⁴ Ibid., 140.

⁷⁵ Ibid., 196.

리스도의 몸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고안한 우상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한다.⁷⁶

칼빈은 이런 잘못된 미사관을 시정하고 올바른 성만찬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미사가 제사라는 이 잘못된 생각을 뿌리 뽑아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불합리성의 원인 (the source of many absurdities)이라고 보기 때문이다.⁷⁷ 더 이상 떡과 포도주는 드러지는 제물(oblation)이 아니며, 성도들이 함께 받아 먹고 마시는 주님 안에서 “교제”(communion)이다. 따라서 칼빈은 성만찬에서 모두가 떡과 잔을 받아먹고 마시는 교제의 의미를 회복한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일년이 한 번 정도로 떡에 참여하는데, 잔은 받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칼빈은 잔을 받아 마시도록 하는 것을 회복시켰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으로 주님께서 잔을 주시기 때문이다.⁷⁸ 두 번째로 칼빈은 화체설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성만찬 제정에 입각한 성만찬의 교제를 회복시킨다. 결국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ی 되지 않는다고 그는 주장한다. 예수님은 첫째로, 받아, 먹고, 마시라는 명령을 주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약속의 말씀--먹는 것은 그의 몸이며, 마시는 잔은 그의 피이다--을 화합시킨다. 따라서 떡과 잔의 상징들 아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준다는 그의 약속이 그 손에 받는 자들의 것이 되면서, 영적인 음식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실상 “신비”(mystery)이며, 자신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신비를 축하한다고 칼빈은 말한다.⁷⁹ 마지막으로, 회중들에게 이 교리를 설명하는 것을 새롭게 회복시킨다. 예배에서 성만찬이 거행될 때 말씀이 주어지면서, 신실하게 가능한 주의스럽게, 성만찬의 목적, 효력, 유익들, 그리고 사용을 설명한다는 것이다.⁸⁰ 칼빈은 미사의 허구성과 미신성을 드러내면서 다시금 성경에 입각한 참된 성만찬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개혁교회에서 이런 성만찬의 의미를 회복하고 실행하려고 노력하였다.

칼빈은 초대 교회의 본에 따라 말씀과 성만찬 이중 구조의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다. 그는 이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했다. 매년 4번 성만찬 시행하는 쾰른의 예배형식에 익숙해 있었던 제네바 개신교도들

⁷⁶ Ibid., 169.

⁷⁷ Ibid., 167.

⁷⁸ Ibid., 167.

⁷⁹ Ibid., 168, 9.

⁸⁰ Ibid., 169.

에게, 매 주일, 또는 매 달에 한 번의 성만찬 시행은 그리 달갑지 않았다. 결국 그는 이런 말씀과 성만찬 이중구조에 의한 예배의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만다.⁸¹

3. 설교

고대 공회에서 정해진 정의에 따르면, 감독의 의무는 말씀 전파와 성례 집행과 성직자와 백성을 거룩한 말씀으로 훈련시킴으로써 백성을 돌보는 것이라고 칼빈은 말한다.⁸² 그러나 감독들이 이러한 그들의 의무를 망각한 채 명예에만 집착되어 있음을 그는 비평한다.⁸³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된 감독들이나 목사들(Bishops and Pastors)은 건전한 말씀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다. 칼빈은 가르침의 이런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도 참된 목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칼빈 당시에 목사들이라고 하는 거의 모든 자들이 이런 직무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버렸다. “백명의 감독중의 한 사람도 강단에 올라서서 설교하는 것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는 말한다.⁸⁴ 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마저도 이런 직책을 또 다른 자들에게 넘겨 버렸다. 칼빈은 자신의 직책을 외면한 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은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며, 중얼거린다. 화려한 치장의 예복으로 자신들을 시위하며, 수많은 예식들을 집행한다. 그러나 그들은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르면, 어떤 사람도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 무리들을 먹이지 않는 감독이나 목사의 직책을 주장할 수 없다.⁸⁵

감독들은 교회 미사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보다는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하는 특허”를 가진 것처럼 교만한 가운데 있었다.⁸⁶

⁸¹ 본인의 논문 “운전한 예배로 향하여,” 54-82에서 칼빈의 성만찬에 관한 중요성, 빈번한 시행을 통한 성만찬 회복에 대한 노력, 그리고 좌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⁸² Calvin,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218: “And ancient Synods define the duties of a bishop to consist in feeding the people by the preaching the Word, in administering the sacraments, in curbing clergy and people by holy discipline, and in order not to be distracted from these duties, in withdrawing from all the ordinary cares of the present life.”

⁸³ Ibid., 218-19.

⁸⁴ Ibid., 140.

⁸⁵ Ibid., 141.

실상 감독들이 설교를 한다고 해도 “설교에서 옛 아낙네들의 우화들과 천박한 이야기들 외에는 거의 들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다.⁸⁷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선포한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⁸⁸ 대해서 칼빈은 일종의 폭정으로 간주해 버린다.

로마 카톨릭 교회 예배는 미사 중심의 예배였기에, 라틴어로 서신서가 읽혀지고, 복음서가 노래 불리워졌지만, 설교가 예배를 마치는데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예배에서 결여되어 있던 말씀 선포를 칼빈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결여되어 왔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선포가 말씀의 핵심이라고 칼빈은 말한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에서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이전에 선포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이다.⁸⁹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함에 있어서 “그의 전능하심을 숭양하며, 그의 위대하심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며, 그의 자비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그를 찬양함에 하나가 될 것을 외친다”;⁹⁰ “그의 능력 안에 확신을 가지며, 그의 선하심에 안식하며, 그의 진리에 의존하고, 진심으로 그에게 마음을 향하며, 충만한 소망으로 그에게만 의탁하며, 필요한 것을 그에게 부탁하며, 매 순간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선한 것들로 인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권면한다.”⁹¹ 이렇게 해서 설교는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하나님 중심적 또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에서 드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축복의 온전한 기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활짝 열려져 있음”을 선포하며, “이 축복으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끌어들이 수 있음”을 말하며, “참된 회개를 할 것과 자신들의 이성을 의지하지 말 것과 육신의 욕망과 자신들을 전적으로 부인할 것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만 순종하는데로 인도되어지도록. 그리고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만을 위

⁸⁶ Ibid., 143.

⁸⁷ Ibid., 146.

⁸⁸ Ibid., 143-4: “What tyrant ever so monstrously abused the patience of his subjects as to insist that every thing he proclaimed should be received as a message from heaven!”

⁸⁹ Ibid., 146.

⁹⁰ Ibid., 147.

⁹¹ Ibid., 147.

해서 살도록“ 말씀을 선포한다.⁹² 예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능력, 진리, 그리고 다른 온전한 것들이 전파되어짐으로서 오로지 미신적인 요소가 없이 경건한 형식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되어지고 있다고 칼빈은 말한다.⁹³ 결국, “그의 이름만의 거룩함을 증진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설교되어지지 않음”으로서 칼빈은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려고 그의 설교에서도 추구한다.⁹⁴

칼빈은 세례와 성만찬에서도 의식 자체에 비중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린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예식에 강하게 항거하면서, 세례와 성만찬의 의식은 말씀이 동반됨으로서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⁹⁵ 그러므로 예식은 어떤 행위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그런 행위들 안에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며, 이런 예식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가운데, 이 말씀을 인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칼빈은 설교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실재화 되며, 하나님의 일이 개인생활에서와 공동체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우선적인 은혜의 수단으로서 생각했다.⁹⁶ 처음에 그는 주일에 두 번 설교했고, 그 다음에 월요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날 설교를 했다. 1542년에는, 더 해달라는 요구에 부응해서, 보다 더 자주 설교했다. 후에는 파로함으로 인해서 시의회는 그에게 덜 부담을 주었다. 1549년에는 그는 주일날에 두 번 그리고 매 둘째 주에 매일 설교를 했다.⁹⁷ 그가 제네바에 도착하기 전부터 화렐은 쾰링글리의 영향에 하에서 lectio continua의 원리를 설교에 적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연속 강해 설교로서 전 성경을 차례로 각 구절을 해석해 가며 설교하는 것이었다. 칼빈은 이런 강해 설교를 아무런

⁹² Ibid., 147.

⁹³ Ibid., 147.

⁹⁴ Ibid., 148.

⁹⁵ Ibid., 139: “여기서 우리가 불평하는 첫 번째 것은 그 의식들의 중요성과 진리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이 사람들은 쇼우맨십의 의식들로 흥겨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표징이 가리키는 그 실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서 설명되지 않는다면 성례들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적합한 목적으로 자기들을 인도해 주는 교리를 들을어 없이, 빈 상징들 앞에 서서 눈만을 요기할 때, 그들은 단지 외적인 행위만을 보는 것이다”; Ibid., 166: “우리는 성례들의 집행에 있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교리의 설명을 동반하고 있는 고대 관습을 우리의 교회들 안에 다시금 가져왔다... 그 비밀의 설명이 동반됨이 없이는 사람들 앞에 헛된 것만을 두는 것 이외에는 그 성례에 어떤 의미도 없게 된다.”

⁹⁶ John H. Leith, “Calvin’s Doctrine of the Proclamation of the Word and Its Significance for Today,” *John Calvin and the Church*, 206.

⁹⁷ Ibid., 206.

어려움 없이 자신의 설교에 적용했다. 보통 그는 복음서와 서신서를 주일날 아침에 설교했고, 복음서, 서신서, 그리고 시편을 주일 저녁에, 그리고 구약을 주중에 설교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거의 대부분의 성경을 설교했다.⁹⁸ 그의 설교는 단순하면서도 명쾌했기에, 제네바에서 가장 존경받는 설교자였으며, 그의 설교는 마지막 죽는 날까지 계속되어진다. 파커는 마지막 생을 말씀으로 장식하는 감동적인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콜라돈은 목회 활동의 마지막 몇 주 동안에 대해 칼빈에 대한 감동적인 설명을 한다: '마지막으로, 그의 질병이 어느정도 악화되자, 그는 주로 강의하고 심지어는 설교하기 위해서 애써 교회에 나갔다. 그는 때로 부탁되어질 때는 어린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1월 중순쯤에 그는 다른 목사들의 요청에 주중모임에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강의를 인도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그의 공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했다. 1564년 2월 초까지 항상 자신의 연약해진 몸을 끌면서 말이다. 2월 2일 수요일에 그는 열왕기상에 관한 그의 마지막 설교를 했으며, 그리고 오후 2시에 학교에서 에스겔에 관한 그의 마지막 강의를 했다. 그리고 2월 6일 주일에 그의 공관복음서에 관한 마지막 설교를 했으며, 그 후에는 그는 결코 강대상에 올라가지 못했다'(CO 21.96).⁹⁹

이런 칼빈의 설교로 인해서 제네바 시민들은 어느 정도의 신학을 흡수할 수 있었고, 삶에 변화가 가능했다.¹⁰⁰ 매우 빈번하게 설교는 들려졌고, 성만찬은 일년에 4번 정도만 거행됨으로써, 개신교는 설교 중심의 예배가 되어 버린다. 이렇게 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예배가 미사 중심이었다면, 개신교예배는 설교 중심이 되어 버린다.¹⁰¹

III. 칼빈의 예배 개혁의 원리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왜곡된 예배를 항거하면서 참된 예배에로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원리들에 입각해서 예배 개혁을 진행해 가고 있는가? 칼빈에게 있어서 예배의 원리에 대한 가장 적합한 설명들이 다양하게

⁹⁸ Ibid., 214-5; T.H.L. Parker, *Calvin's Preaching*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63-4.

⁹⁹ Parker, *Calvin's Preaching*, 64.

¹⁰⁰ Kingdon, "Genevan Revolution in Worship," 275.

¹⁰¹ Ibid., 280.

시도되어 왔지만, 에어러는 “가장 흔하기 사용된 두 가지는 *solī Deo gloria* (하나님께만 영광)와 *finitum non est capax infiniti*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을 담을 수 없다)이다.”고 주장한다.¹⁰² 이 둘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동전의 두 양면과 같은 것이다. 칼빈은 우리가 살펴본 이 글에서 계속해서 유한한 것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대치해 버림으로써 예배의 이상화에 대한 심각한 견해를 제시한다. 이런 로마 카톨릭 교회 예배에서의 잘못에 대한 항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버림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상상이나 예술로써 하나님을 묘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림과 성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묘사되어져 버리고, 성인들의 상들과 그들에 대한 예식들이 신성화되면서, 우상숭배적인 요소들을 칼빈은 발견한다. 그러므로 칼빈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림에도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만이 경배되어지기 위해서 우상 숭배적인 그런 그림들과 신상들을 파괴하는 가운데 “우상들과의 전쟁”이 칼빈에게 있어서는 예배 개혁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¹⁰³ 찬송에서 성인들은 마치 하나님의 동료들이 되는 것처럼 축복을 받으려고 찬양되어지고 있었고,¹⁰⁴ 이런 성인들의 신상들과 이미지들은 하나님께나 드리는 그와 같은 경배를 드리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성인들의 뼈들, 옷들, 신발들, 그리고 형상들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경배되어지고 있었다.¹⁰⁵ 왜냐하면 하

¹⁰² Eire, “Calvin’s Attack on Idolatry,” 249.

¹⁰³ Ibid., 251-53.

¹⁰⁴ Calvin,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131: “testimony is borne by the public hymns, in which the saints are lauded for every blessing, just as if they were the colleagues of God.”

¹⁰⁵ Ibid., 131: “Do not men pay to images and statues the very same reverence which they pay to God?... Besides, it is undeniable that saints, nay, their very bones, garments, shoes, and images, are adored even in the place of God.” 칼빈은 물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사용되는 경배의 개념들을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는 다른 성인들과 그 형상들과 그리고 그 뼈들, 옷들 등에 드리는 경배는 차이가 있었다. 후자에 드리는 경배는 *dulia*의 경배였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경배는 *latria*의 경배이다. 그리고 모든 자 위에 뛰어난 성모 마리아에게 드려지는 경배는 *hyperdulia*이다. 그러나 칼빈은 성인들과 그들의 소유물들에게 경배를 드리는 자들이 과연 이런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드리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다 우상화라고 공격한다: “As if these subtle distinctions were either known or present to the minds of those who prostrate themselves before images. Meanwhile, the world is full of idolatry not less gross, and if I may so speak, not less capable of being, felt, than was the ancient idolatry of the

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런 성인들의 형상들과 신상들에 붙어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¹⁰⁶ 과연 칼빈에게 이런 우상 숭배가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해서 에어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상 숭배는 단지 물질적인 대상에 대한 예배만 의미할 뿐만 아니라, 부정확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어떤 형태의 헌신이다. 이렇게 해서 우상숭배에 대한 개혁주의 관심은 예배에서 예술의 사용 뿐만 아니라 예배와 사회적인 배경에서 드러나는 행동에까지 확장된다.”¹⁰⁷ 칼빈은 이런 유혹의 원인들을 제거함으로써만 이 형상에 미쳐있는(idolomania) 자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한면서, 어거스틴을 인용하고 있다: “그 형상이 자기의 말을 듣고 있다는 생각으로 채워짐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그 형상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나 경배하지 않는다.”¹⁰⁸ 칼빈은 이런 신상들과 그림들로 치장된 왜곡된 예배의 문제점들을 원색적으로 드러내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항거하고 있는 것이다.¹⁰⁹

이런 두 가지 원리와 더불어 칼빈이 이 글에서 제시하는 또 다른 원리는 예배는 성경에 따른 예배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가 어떤 권위에 근거해서 우상에 대한 공격을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이런 원리들 이면에 흐르고 있는 근본적인 원리는 바로 성경 말씀에 입각한 예배이다. 칼빈은 예배는 우리 인간적인 고안에 의한 창조성을 표출하려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예배의 형식들을 고안하는데 혈안 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에 따르는 순종의 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해야 하는 자들이라고 칼빈은 말한다.¹¹⁰ 이것은 기독교 예배가 성경에서 계시되어져 있으므로,

Egyptians, which all the Prophets everywhere so strongly reprobate”(131).

¹⁰⁶ Ibid., 149.

¹⁰⁷ Eire, *War against the Idols*, 5.

¹⁰⁸ Calvin,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150.

¹⁰⁹ Ibid., 148: “When God is worshipped in imagies, when fictitious worship is instituted in His name, when supplication is made to the images of saints, and divine abominations, we protest, describing them in their true colours.”

¹¹⁰ Ibid., 128: “우리에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고안들도 채택하지 않고 오로지 서순하기에 합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순수한 예배와 거짓된 예배를 구별하는 그 규칙[성경에 따른 예배, 본인의 것]은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로 하여금 우리의 예배를 인정하게 하려 한다면, 그가 어디에서가 강한 엄격성으로 요청하시는 이 규칙이 조심스럽게 준수되어야 한다”; Ibid., 132: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예배와 거짓된 예배를 구별하는 시험대라는 것을 준수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현재에 예배의 형식이 전반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빠져 있다”; Ibid., 146:

이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칼빈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제재되어지지 않는 그런 예배의 방식은 기절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다.¹¹¹ 그는 로마 카톨릭 교회 예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체계화된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권위있게 준수한 것은 거의 없다.”고 혹평을 가한다.¹¹²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칼빈은 로마 카톨릭 교회 예배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합당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단지 자신의 목소리에만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를 칼빈은 두 가지로 말한다. 첫째는 이렇게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의 쾌락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주권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창조적인 것들을 고안해 낼 수 있도록 자유 가운데 두어진다면, 우리는 모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이다.¹¹³ 이런 칼빈의 견해는 실상 그의 오대 교리 중의 하나인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관련되어 있다. 칼빈은 “모두가 다 자신의 생각을 고상하게 생각한다”는 격언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이성애 의해 고안된 예배는 지혜의 모양도 있고, 눈을 기쁘게 하는 외적인 화려함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인간의 죄악된 속성에 더 일치할 뿐, 하나님이 합당하게 보시는, 덜 치장된 예배와는 멀어지게 된다고 말한다.¹¹⁴ 그러므로 칼빈은 예배와 관련해서 온갖 인간적인 고안에 의해 이루어진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이 말씀에 중요성을 둔다.¹¹⁵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칼빈은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성인들의 신앙들과 형상들에 대한 경배와 찬양 등과 같은 예배에 강력한 항거를 하고 있으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입각한 예배를 드릴 것을 주장한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의 명령들에 따라서 영광 받으시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진 교리와 성례를 집행하는 우리의 형식과 교회를 다스리는 우리의 방법을 검토해 보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표준으로 그것을 회복하려는 시도 없이는, 옛 형식들에 어떤 변화도 시도하지 않았다.”

¹¹¹ Ibid., 133.

¹¹² Ibid., 189.

¹¹³ Ibid., 128.

¹¹⁴ Ibid., 153.

¹¹⁵ Ibid., 129.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든 변경할 수 없는 불변의 규율로서 성경에 새겨져 있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여기서 정말로 순수하고 실제적인 종교가 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경외함으로 연합되어 있고, 이 경외는 또한 자원하는 존경을 감싸고, 이와 함께 율법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러한 적합한 예배를 가져온다.”¹¹⁶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예식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로마 카톨릭 교회 예배의 심각한 타락상으로 인해 칼빈은 성경에 입각한 예배를 드릴 것을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할 지에 대해서 명백한 예배 형식의 본을 성경에 입각해서 제시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예배의 형식에 대한 규율을 제시하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¹¹⁷ 그러므로 칼빈은 성경의 표준에 입각해서 드린 초대 교회의 예배들을 회복하려고 했으며, 자신의 예배에 대한 주장들을 초대 교회 예배로부터 지지를 받는 그런 입장을 내세웠다.¹¹⁸ 따라서 칼빈은 성경에 근접한 초대교회의 예배 모범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칼빈은 성경에 입각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에 대해서, 그것은 “영적인 예배”라고 주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시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 4:23). 이 말씀으로써 그는 이런 영적인 방식으로 조상들에 의해서 경배를 받지 못했다고 선언하려고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외적인 형식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음을 선언하시려는 것이었다. 즉, 그들은 많은 상징들에 의해서 그림자 드리워진 성령을 가진 반면에, 우리는 단순성으로 성령을 소유한다는 차이점이다. 그러나 항상 영이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어야만

¹¹⁶ *Institutes*, 1.2.2.

¹¹⁷ 칼빈은 명백히 신약성경에서 주일 예배 형식을 위한 엄격한 청사진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완전한 주일 예배를 위한 핵심적인 성경적인 패러다임 혹은 내용을 위한 안내 지침서를 사도행전 2:42절에서 발견한다. 칼빈은 처음에 나온 초기 『기독교 강요』에서 사도행전 2:4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믿는 자들은 ‘...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함, 그리고 떡을 떤 때 기도하기를 계속했다[행전 2:42]고 말할 때, 이것이 초대 교회의 습관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말씀, 기도, 떡을 떤, 그리고 헌금이 없이는 교회로 모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변치 않는 규칙이 되었다”(4:17:44)

¹¹⁸ Calvin,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146, 49.

다는 것은 인정된 사실이다.¹¹⁹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예배는 예식에 비중을 많이 두었다.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신상들과 형상들에 대한 경배를 통해서 예식을 마치면, 마치 어린 아이들이 쇼에서 만족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은 만족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고 칼빈을 말한다.¹²⁰ 하나님은 예식들 안에 거하지도 않으시며, 예식 안에 가치를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믿음과 진실된 마음을 바라보신다.¹²¹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외적인 치장들과 복잡한 절차를 통한 화려한 예식들을 통한 예배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러지는 예배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이다. 물론 이런 영적 예배는 비물질적인 예배(nonmaterial worship)와 동일시되어지지는 않는다. 참된 예배와 거짓된 예배의 차이는 바로 내적인 예배인가 외적인 예배인가에 대한 것이다.

칼빈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자들의 신상과 형상들에 대한 경배에 대해 공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 단순하게 경배한다.”¹²²고 말씀으로써 예배에서의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한 단순성을 주장하고 있다.¹²³ 칼빈에게 있어서 영적 예배는 단순한 예배로서 사람들과 어떤 대상들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모아진다. 결코 예배의 형식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하면 말씀에 입각한 단순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마음에 초점을 둔다.¹²⁴ 인간의 교안에 의해서 온갖 성인들의 성

¹¹⁹ Ibid., 127-28.

¹²⁰ Ibid., 151.

¹²¹ Ibid., 151.

¹²² Ibid., 151.

¹²³ 참고, Michaeam. col. 394: “Hypocritat totam sanctimoniam locant in externis caeremoniis. Deus autem longe aliud requirit. Cultus enim eius spiritualis est.” quoted in Hughes Oliphant Old, “John Calvin and the Prophetic Criticism of Worship,” in *John Calvin and the Church*, 236.

¹²⁴ Eire, “Calvin’s Attack on Idolatry,” 251-2; Calvin,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128: “순수한 예배와 가치를 손상시키는 예배사이클 구별하는 규칙[예수님의 명령, 본인의 것]은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적합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장치도 채택해서는 안되고, 서술하기에 흉토 함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승인해 주시는 그 분을 소유하려 한다면, 그가 어디에서나 가장 엄격하게 강조하는 이 규율이 주의스럽게

상들과 형상들과 함께 치장되어진 예배는 타락한 예배가 되어지고, 그분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 버린다.¹²⁵ 따라서 그분이 명하지도 않은 인간적인 교안에 의한 보이는 상징들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부적절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제네바에 있던 로마 카톨릭 교회들은 개신교로 바뀌면서, 이런 개혁 원리에 따라 외적인 형태에서도 바뀌어진다. 제네바 시에 있던 7개의 로마 카톨릭 교회 가운데 4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단지 3개의 교회만이 남는다. 프란시스 수도원은 학교로 변해버리고, 클레어 수녀들의 수녀원은 병원으로 탈바꿈한다. 이 병원은 오늘날의 병원과는 어느정도 다른 양상을 지니는데, 다양한 목적을 지니면서 고아들과 지체 장애자들을 위한 복지 기구가 된다. 남아 있는 세 곳의 교회당들도 변화된다. 평신도들로부터 성스런 제단을 구분 지었던 칸막이가 철폐되어진다. 미사 동안에 성례가 거행되었던 제단도 제거되어진다. 신상들과 예배를 위한 시각적 보조물들도 제거되어진다. 벽에 그려져 있던 온갖 성인들의 그림들도 페인트로 지워 버린다. 유리창에 있었던 스테인글래스는 파괴되지 않지만, 유지되지도 않는다. 교회 오르간은 잠그어 지고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시 당국자들이 오르간을 팔려고 시도했지만, 사려는 고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용되지 않은 채로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고서 이곳에 개혁자들은 강단과 의자들을 설치했다. 각 교회에 최상으로 목소리가 들려질 수 있도록 설교자를 위한 높은 강대상이 설치되었다. 매우 높아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고 명확하고도 쉽게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강대상을 설치한 것이다. 노래 인도자(cantor)를 위해서 보다 낮은 강대상이 있었다. 이 노래 반주자는 시편의 노래로 회중을 인도하기 위해서 고용되어졌었다. 이것이 16세기 칼빈이 설교했었고, 오늘날 성 베에르 교회에서 발견하는 배열이다.¹²⁶

지켜지어야 한다. 모든 거짓된 예배를 정죄하고 금지함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단지 자기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만 하라고 하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이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쾌락을 따르지 않고, 그의 주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분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성향을 지니게 된다. 둘째는 우리가 자유롭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잘못된 길로 벗어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다."

¹²⁵ Calvin,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144: "When by horrid blasphemies the worship of God was corrupted, and His glory laid prostrate--when by a multitude of perverse opinions, the benefit of redemption was frustrated, and men, intoxicated with a fatal confidence in works, sought salvation any where rather than in Christ."

¹²⁶ Kingdon, "Genevan Revolution in Worship," 269.

결론

본인은 칼빈의 예배 개혁에 관해서 그의 논문 “교회 개혁에 대한 필수성”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이 글에서 칼빈은 로마 카톨릭 교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를 모독하며, 그를 조롱하며,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우상숭배로 전락해 버렸다는 강렬한 항거를 읽게 된다. 기도에서, 미사에서, 설교에서, 형상 숭배에서, 모든 곳에서 끊지 않은 곳이 없으며, 거의 타락해 버렸다. 그러기에 그는 예배 개혁을 “우상과의 전쟁”으로 간주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런 예배 개혁은 개혁의 이슈 가운데 부차적인 것이 아닌 중요한 이슈들의 하나였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의 원천은 올바른 예배의 지식으로부터 온다고 그는 말하기 때문이다.

이런 예배의 심각한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뵈히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고 다음과 같이 반문한다: “한 개가 자기 주인이 당하는 폭력을 보면서, 즉시로 짓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이 그렇게 모욕적으로 경멸되어지는데 침묵할 것인가?”¹²⁷ 칼빈은 침묵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런 예배 개혁에 그는 우상 숭배로 짓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부르짖는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분개로 개혁을 부르짖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한한 것들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치장해 버렸던 우상적인 요인들에 대해 항거하면서, 칼빈은 그런 항거에 대한 권위의 근거를 성경 말씀에 둔다. 로마 카톨릭 예배에 대해서 고찰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권위있는 승인을 받기 위해 말씀에 준수해서 했다는 말이 것의 없었다.”고 칼빈은 말한다.¹²⁸ 칼빈은 예배는 인간의 고안과 창조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창조성을 허용해 버릴 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그런 예배는 점차적으로 가식된 예배로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인간에 의한 “의지-예배”(will-worship)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예배여야 하는 것이다.¹²⁹

¹²⁷ Calvin,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189.

¹²⁸ Ibid., 189.

칼빈에게 있어서 말씀에 입각한 예배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외적인 치장과 화려함으로, 인간의 의지와 창의성에서 기인하는 예배가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이다. 이것은 말씀에 따르고 초대 교회의 본을 따르는 예배인데, 외적인 치장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에 비중을 두며, 믿음에 무게를 두며, 하나님만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인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예배인 것이다. 가능하면 예배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향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인 것이다. 이런 칼빈의 예배 개혁에 대한 원리들은 오늘날 현대 예배에 좋은 교훈을 준다.

물론 오늘날 우리 개신교 안에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예배의 심각한 타락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록 외적으로는 타락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망으로 향하지 않을 때,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그 마음에 멀 때,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실상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준다. 그리고 오늘날 다양한 예배의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신자를 위한 예배, 경배와 찬양, 은사 중심의 예배들 등. 이러한 예배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를 성경을 들어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초대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그 건전한 전통들이 조금씩 무너져 버릴 때,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초점을 두며, 성경과 건전한 전통에 입각한 예배의 틀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문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다. 이런 점에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예배에 대한 칼빈의 예배 개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할 수 있다.

¹²⁰ Ibid., 189.